

축 사

농업인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오늘 농민들의 응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제11회 완도군농업인한마음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작금의 농촌 현실의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완도군농업인단체협의회 강영찬 회장님과 농촌지도자완도군연합회 박성길 회장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지명관 회장님, 생활개선회 이순미 회장님, 한여농 신연화 회장님, 4-H연합회 강승완 회장님, 귀농인연합회 이성상 회장님, 농업인대학총동문회 박성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신의준** 도의원님,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 완도교육지원청 **김정선** 교육장님, 농협은행 완도군지부 **김진수** 지부장님, **김미남**, **김중량**, **이병호** 조합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완도군지부 **박태건**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의 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젊은 사람이 농촌을 많이 떠나갔지만 외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귀향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만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제품으로 가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3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은 식품산업과 하나가 되었고, 생명공학과 만나 바이오 농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과 결합해서 소셜 커머스, 가상 쇼핑 등 유통·판매에 있어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젠 관광과 체험, 문화까지 융합되면 우리 농업에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책임진다.”라는 자긍심으로 우리 농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은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 삶을 꽃 피우고 생명을 지키는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들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1회 완도군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